

4 현대불교 창간 4돌

시간을 짧게 기복조심 참선시간 갖는게 효과

심산스님 <통도사 부산포교원장>



가정법회가 생활속에 바닷바람처럼 정착된다면 여러가지에서 가족들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편안함과 안정을 주는 가정은 모든 생활을 하는데 있어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준다. 부처님법에 의지, 마음을 밝히고 겸허해진 마음으로 생활에 임한다면 불행과 고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가정법회는 기존 법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법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법문이 따로 없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참선시간을 갖는게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너무 길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법회는 특히 젊은 부부층에서 활성화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자녀들이 어릴수록 가족 전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분위기를 모아갈 수 있고 가정법회를 통한 신앙이 자연스럽게 생활에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정법회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융화하는 길을 제시하고 생활속 불교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가정법회가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데 반해 우려점 또한 있다. 가정법회가 기복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맹신적인 개념으로 대립입시를 위해서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 가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 가정법회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족 모두가 부처님 법에 귀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밝혀가는데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복을 비는 소극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정법회기 이렇게



의식에 치우치지 말고 가족 대화형식 법회를

백남석법사 <대불련 지도법사>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 도량이다. 그런데 대부분 불자들은 마음으로 항상 법회를 보고 있다며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가정법회가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자들이 '마음'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고 사찰법회의 방식을 가정법회에 똑같이 도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가정법회는 간소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적인 면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야 한다. 물론 전체적인 법회 시간도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법회는 예불문, 반야심경, 화엄, 사후서언 등으로 의식적인 부분은 가능한 줄이고 많은 시간을 가족들간의 생활이야기를 듣는 대화의 형식으

로 진행돼야 한다. 물론 가정이 사전에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철저한 법회자료 준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자리가 익숙해지면 차츰 불교적 소재를 대화의 주제로, 큰스님들의 법문대일어나 비디오투를 보고 듣는 법회 형태로 해야 한다. 또 한달에 한번정도 사찰을 탐방하거나 대중법회에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도 가정법회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밖에도 가정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적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가족이 모두 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인 아침식사에서 공양게송을 읽는다든지 간단한 기도문을 작성해 독송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년째 아침 1시간씩 온가족 모여 삼독녹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신 자비심의 다라니를 열어 청하옵나니..."

매일 아침 서울 용산구 보광동 김경자씨(47)의 안방에서는 남편인 전봉수씨(50)의 합창 목소리가 새 날이 시작됨을 알린다. 5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정법회를 열어오고 있는 전씨가족. <천수경>으로 시작해 <반야심경> <화엄경약찬게> <화엄염송>과 관세음보살과 광명진언도 108번씩 염송한다. 그러다음 가족과 주위사람들을 위해 축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앞날을 위한 발원도 마음속으로 새긴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약 1시간이 금방 지난다.

김씨는 목욕탕 운영을 위해 새벽부터 바쁘고, 전씨는 사업으로 큰달 재연양(23)은 졸업연주 준비로, 둘째딸 민정양(20)과 막내 상현군(17)은 계속되는 학업으로 다들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런가운데서도 틈틈이 가정법회에 참여한다. 그레도 시간이 없어 참석하지 못했을때는 각자가, 자신의 생활속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이들 가족의 일일수행원칙이다.

전씨가족의 가정법회는 전씨부부가 함께 불교대학 야간 6기를 졸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부인 김씨의 권유로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난후 남편인 전씨가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 100일 기도법회를 한것이 자연스럽게 가정법회로 이어진 것. 처음 시작할때는 방법을 몰라 무작정 한가지 경전을 정해놓고 지극정성으로 계속 읽어내려가더니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부부가 함께 법회를 시작하자 아이들도 자연스레 감화돼 이

가정법회 탐방 전봉수씨 가족



전씨가족은 가정법회를 통해 인연되고 싶다는 하루하루를 가꿔나간다.

후 지회 집에서는 공부하라는 잔소리없이도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게되고, 믿고 맡겨두었더니 부처님 법대로 되어나가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며 가정법회의 효력을 김씨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시어머나가 쓰러지고, 올 여름에는 운영하는 목욕탕에 약간의 화재도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가족이 일심으로 기도정진하며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갔다.

전씨는 "요즘같은 경제불황시대에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가정법회로 집안이 항상 편안하니 그만큼 남들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사업을 하다보면 번잡한 일도 많고, 탐심과 진심으로 일어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때면 스스로 알아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낸 전씨가족은 "뉘뉘뉘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회를 통해 살맛나는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면서 "현생에서 극락을 살기위해서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가정법회를 실천해 보기를 여려불자들에게 권한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ee@buddhopia.com)

상담전화에 나타난 위기의 가정

실직자 20% 이혼-별거 "어려울수록 가족은 합심해야"

가정의 실직 등 IMF 한파로 인한 결손가정이 늘고 있다.

자비의 전화에 경제적 이유로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상담자가 IMF 이후 꾸준히 늘어나 올해 상반기에는 월 15명선, 8~9월에는 2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농민선원의 복지상담실, 불광사의 바람상담실등 교계 10여개 상담전화에도 실업문제가 높은 비중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담자도 청소년 주부에서 남성 실직자로 옮겨가는 추세다. 더욱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벌여 생활할 수 있는 30~40대가 실직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서울·부산지역 실직자 6백96명을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실직자 5명중 1명(19%)이 이혼이나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직가정의 경우 월평균 가계적자가 22만원으로 거의 도탄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실직자 6.7%는 자녀양육을 감당할 수 없어 부모나 친척,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실업은 가정과파의 주범으로 부상했다. "어려울수록 가족이 합심해야만 가정을 지키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담자들의 도움말이다.

김원우 기자(kwkim@buddhopia.com)

가정법회 설문내용

1. 가족 모두 불자입니까?
①그렇다 68.1%
②부부만 13.4%
③아내만 7.1%
④남편만 3.7%
⑤아이들만 0.6%
⑥무응답 7.1%
2. 불교를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법을 하고 있나?
①권하고 있는 중이다 38.3%
②적당한 때를 보아서 할 생각 10.3%
③종교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36.8%
④무응답 13.7%
3. 가족불자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①정기적으로 법회 참석 35.6%
②불교서적 읽기 12.5%
③불교교리 공부 10.3%
④108배 하기 2.0%
⑤사찰수련회 참가 7.7%
⑥불교TV, 라디오, 신문 등을 보고 듣기 16.8%
⑦종교하는 스님과의 대화 10.3%
⑧무응답 4.8%
4. 가족중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가족간의 마찰이나 불화가 있나?
①없다 24.8%
②서로 간섭 않는다 55.8%
③간혹 대화중 여색해진다 11.7%
④자주 의견교환하며 서로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5.7%
⑤다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2.0%
5.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는 점은 무엇인가? (복수 응답)
①부부화합 13.5%
②가정화목 41.0%
③자녀교육에 보탬 11.4%
④어려움 극복 34.1%
6. 식사 때마다 증양제 혹은 합장을 하나?
①한다 34.0%
②안한다 35.8%
③집에서는 하지만 외식 때는 안한다 1.7%
④불규칙적이다 25.6%
⑤무응답 2.9%
7. 가족이 함께 하는 수행은?
①참선 10.8%
②새벽예불 5.4%
③독경 10.5%
④사경 4.6%
⑤108배 등 정하기 12.8%
⑥염불주행 10.0%
⑦없음 19.1%
⑧무응답 26.8%
8. 불지가정임을 알게 하는 불교용품이나 법구가 있나?
①있다 87.5%
②없다 10.5%
③무응답 2.0%
9. 불교상징물을 집안에 장식하는 이유는?(8번 질문에 ① 응답자 중)
①신앙의 상징으로 볼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한다 64.1%
②가피를 버리는 마음에서 14.0%
③특별한 뜻없이 분위기상 장식용으로 5.4%
④이교도의 전도 방지 위해 10.5%
⑤무응답 6.0%
10. IMF 이전과 비교해 절에 가는 횟수는?
①더 자주 간다 13.4%
②거의 차이가 없다 74.6%
③줄었다 7.7%
④많이 줄었거나 아예 가지 못한다 1.7%
⑤무응답 2.6%
11. 줄었다면 그 이유는? (10번 질문의 ③, ④ 응답자 중)
①시주금이 부담되서 33.3%
②시간의 여유가 줄어서 66.7%
12. 늘었다면 그 이유는? (10번 질문의 ① 응답자 중)
①부처님께 의지해 용기를 얻기 위해 40.4%
②시간의 여유가 늘어서 6.4%
③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 53.2%
13. 가정법회를 통해하십니까?
①한다 19.4%
②안한다 80.6%
14. 가정법회를 보는 횟수는? (13번 질문에 ① 응답자 중, 18번까지는 가정법회를 보는 사람에 한함)
①매일 26.5%
②매주 7.3%
③매월 20.6%
④불규칙하게 45.6%
15. 가정법회 통해 장소는?
①불단을 만들었다 7.4%
②불교성을 앞에서 14.7%
③거실에서 33.8%
④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44.1%
16. 법사를 초청하는가?
①초청한다 16.2%
②초청 않는다 83.8%
17. 가정법회 때 보시금을 만든다?
①그렇다 44.1%
②아니다 55.9%
18. 보시금의 사용처는? (17번 질문의 ① 응답자 중)
①사찰에 시주 53.3%
②복지시설에 보시 36.7%
③불우한 친척에게 전달 10.0%
19. 가족이 함께 절이나 법회에 참가하는 횟수는?
①매주 1회 이상 17.6%(3.4) 4
②매월 1회 이상 30.9%(6.0)
③수시로 29.4%(5.7)
④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특별한 날에 22.1%(4.3)
20. 가정법회를 안보는 이유는? (13번 질문에 ② 응답자 중, 21번까지는 가정법회를 안보는 사람에 한함)
①할 여력이 없다 41.7%
②필요성을 못 느낀다 11.3%
③잘 몰랐다 23.3%
④가족구성원 중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15.2%
⑤가족 모두 모일 기회가 없어서 8.5%
21. 가족이 함께 절이나 법회에 참가하는 횟수는?
①매주 1회 이상 10.3%
②매월 1회 이상 21.2%
③수시로 20.1%
④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특별한 날에 40.6%
⑤기타 7.8%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

조계종 29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릅시다.

- 총무원 간부, 교구본사주지등 주요 공직 소임자 스님들은 금번 선거운동에 엄정중립을 지켜야만 공정선거가 될 것입니다. -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 협의회(이하 공불협)'는 지난 9월 23일 출법기자회견을 갖고 제 29대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와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중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위한 방편으로 채택된 이변선거가 조계종단의 중흥과 화합을 일구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한가위 연휴를 전후하여 우려할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자칫 선거과열로 중도분열사태로 인한 국민의 지탄을 우려하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조계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본사주지등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중무원은 엄정중립자세로 이변선거에 임해야 할것입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이변 선거과정에 각 후보자들 및 교계 유관단체들에게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중선위의 지적대로 이변 선거가 정정승가작용을 유지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히, 중앙종무기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믿습니다. 현 승원주총무원장스님의 출마가 공명정하게 회자되고 있는 지금, 공정한 선거과열 조성의 핵심은 중앙종무기관의 엄정한 중립성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중무원들이 이변선거에 공정무사한 모습으로 임해 주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중무원 개인의 선택은 자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편파적 행위는 공정선거를 해칩니다.

국가의 선거도 판권개입으로 부정선거가 되어 당선 이후에도 정통성의 시비에 항상 휘둘리게 됨을 누차 경험했지 않습니다.

불기 2542(1998)년 10월 8일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02-720-6564)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법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석담,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외 23개 불교시민'사회'신행단체

■제보를 받습니다.- · 금품,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행위 · 중앙종무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 불법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